

## 예비자 교리 교안 4 (12 월 3 일)

#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

### 1. 모세는 누구인가? (모세: 물에서 건져내다)

- ◆ 하느님의 중개자(예언자)이다.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. 이집트 탈출사건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 해방을 시켰다.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 백성으로 삼으실 때 (십계명) 계약의 중개자였다.
- ◆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40 년 세월에 하느님이 주신 그 법을 준수하는 길이 곧 삶의 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다.
- ◆ 모세는 120 세가 되던 해에 모압 땅에서 죽는다.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밟지 못했다. 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의해서 '하느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'에 들어가 하느님의 임무를 완성한다.

### 2. 이집트 탈출사건의 과정은?

이스라엘은 기원전 1800 경 성조 아브라함, 이사악, 야곱, 요셉으로 이어져 오는데 요셉 때 기근으로 이집트로 이주한 후 큰 무리로 번성하였으나, 기원전 1250 경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억압을 받게 된다. 이 종살이에서 억압과 고통과 핍박에 힘겨워 하느님께 울부짖는다. 그 울부짖음을 들은 하느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협력자인 모세를 부른다. 모세는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라는 하느님 말씀을 전한다.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억압한다. 이에 하느님께서서는 이집트에 9 가지 재앙을 먼저 내리고 마지막 재앙 만이 죽이신다고 선포하신다. 이집트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오는 밤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이스라엘의 집안은 건너뛰게(파스카) 하시어 재앙을 피한다. 이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다.

### 3. '파스카'는 무슨 뜻인가?

- ◆ 파스카: 거르고 지나가다, 건너 뛰다, 통과하다, 보고도 그냥 지나가다 란 뜻이다.

- ◆ 이집트의 10 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(말배의 죽음) 때에 양과 염소 피를 문설주 에 발라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한 데서 기원한다.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탈출사건을 기념하여 매년 열리는 축제를 '파스카 축제'라 했다.
- ◆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파스카 축제 기간이었다. 목요일의 최후만찬, 즉 파스카 식사를 하신 다음 잡혀 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.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간은 죄의 노예에서 하느님백성으로 건너가게 되었고,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.
- ◆ 이 이집트 탈출사건인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'구약의 파스카'라고 하며,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'신약의 파스카'라고 말한다.

#### 4. 무교절, 오순절, 초막절은 무엇인가?

- ◆ 무교절: 과월절(파스카 축제)와 무교절은 서로 다른 날이었으나 과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기 때문 에 하나의 축제로 여기게 되었다. 과월절(파스카 축제)은 이스라엘의 정월 달 14 일 저녁에 시작되어 무교절 7 일간의 축제가 이어 졌다. 무교란 효소가 없는 즉 누룩없는 빵을 말한다.
- ◆ 오순절: 수확할 곡식에 첫 낫을 대는 때부터 50 일째 되는 날에 지내는 축제를 말한다. 주간절이라고 하며 하루 동안 축제를 지낸다. 이는 수확하는 추수감사 축제이다. 후대에 와서 노아와의 계약, 시나이 산에서의 십계명을 받은 사건과 관련된다.
- ◆ 초막절: 추수절이라고도 하는데 소출을 거둔 다음 일곱째 달 보름부터 7 일간 초막에서 지내는 축제. 이집트 탈출 후 광야의 40 년 동안 초막을 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한다.

#### ● 하느님의 이름

“나는 있는 나다.”, “나는 곧 나다.” 또는 “나는 있는 자이다.”라는 의미를 지닌 당신의 신비한 이름 야훼(YHWH)를 알려 주심으로써,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서 누구이시며 어떤 이름으로 당신을 불러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다. 하느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. 성경을 읽을 때, 계시된 하느님의 이름은 '주님'(Adonai, 그리스 말로는 Kyrios)이라는 명칭으로 바뀌 읽었다.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천주성도 “예수님은 주님이시다.”라는 말로 표현될 것이다.